

구례 원촌초 농산어촌 유학생들, 산수유축제 무대올라 큰 호응

‘구례의 산수유’·‘그래 그래 구례’ 두 곡, 임지민·구례합창단과 열창 짧은 시간 동안 연습, 삼천여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노래·춤 선어

원촌초·구례산동중학교는 지난 11일 원촌초 농산어촌 유학생들이 포함된 1~4학년 희망학생 9명이 산수유축제 식전공연 무대에서 ‘구례의 산수유’와 ‘그래 그래 구례’ 두 곡을 트롯가수 임지민, 구례합창단과 함께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축제 무대에 참여한 1~4학년 9명(농산어촌 유학생 3명) 학생들은 차선희 돌봄 선생님의 지도로 2월 말에서 3월 둘째 주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여 삼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산수유축제 무대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원촌초·구례산동중은 유·초·중 포함 전교생 81명 중 올해 15가족 21명(유 2명, 초 18명, 중 1명)의 농산어촌 유학생들이 가족제류

형으로 전학을 와서 복식학급을 해소하고 모둠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활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었다.

이번 산수유축제 노래를 작곡한 서은미 작곡가는 “산수유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이 구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작곡을 했는데 원촌초 학생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원촌초 2학년 농산어촌유학생 김태인 어머니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쑥스러워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구례에 유학을 와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산수유노래 공연을 하게 되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했는데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태인이 얼굴은 신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어서 구례로 유학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하느라 애쓰신 선생님과 잘 따라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래와 춤을 지도한 차선희 돌봄교사는 “올해의 축제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더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게 지도하여 산수유노래가 널리 퍼져 고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김영희 교장은 “올해 2023 산수유축제가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되어 원촌초 학생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농산어촌 유학생들



도 참여하여 학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구례의 특성을 살린 유학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행복한 유학생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원촌초는 구례의 자연환경과

산수유를 비롯한 농업유산 체험, 구례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 약수초, 지역교육공동체 협의회 개최



지난 9일에 약수초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점점 학생수가 줄어가는 약수초등학교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북하면장, 동문

회장, 주민자치회장, 이장단 협의회장, 북하체육회 임원, 한농연 회장, 청년회장 등 10여 명이 모여 지혜를 모았다.

요즘 전라남도의 시골 작은 학교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점점 작아져가는 약수초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자는데 힘을 모았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약수초등학교의 영여특성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설명이 있었다.

장성=김수권기자

목포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위한 합동 등교맞이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슬로건



목포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3월 10일부터 ~ 4월 7일까지 목포 관내

초·중·고 학교의 아침 등교맞이를 실시한다.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신학기 개학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관내 학교 등교맞이를 계획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피켓을 제작하여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품을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회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등교맞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함께 참여한 학생회와 교직원들에게는 목포의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목포=기동채본부

화순 능주초, 능주삼일절만세운동 기념 행사

화순 능주초가 지난 13일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하는 능주삼일절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지강 양한목 선생은 대한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지역 인사로 화순 출신이다. 화순과 광주지역에서 3·1운동을 직접 주도하고 참여한 조국현, 김근석 선생 등 많은 화순 출신 독립운동가가 3·1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능주면 관영리에 사는 양희준, 김정열, 주재영 등은 만세운동(3월 13일)을 능주 장터에서 외쳤다.

기념행사는 광복회전남중부연합회 주최



칠 회장의 능주삼일절만세운동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삼일절독립선언서 낭독과 능주초총동문회 이영수 회장의 기념사,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양평생교육관, 창의·특기적성·예술 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

15주 동안 330여 명의 학생 참여

광양평생교육관은 지난 11일 봄학기 학생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창의·특기적성·예술 분야의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5주 동안 3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나는 영어교실>이 신규 프로그램으

로 개설되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교육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 어렵던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정미라 관장은 “우리 교육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